문화재환수에 '한마음'

남·북 불교대표 8일 서명…독도 관련 성명도

물보다 진하다는 피도 고개 돌린 남북이 불심으로 손잡았다.

경색된 남북 관계로 남과 북 선수단이 따로 입장하던 베이징올림픽 개막일(8월 8일)에 남북 불교계가 공동합의를 이뤘다.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운동' 협의차 8월 5~9일 평양을 방문한 조선왕실의궤환수위 공동의장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 등 남측 불교계 인사 11명은 정서정 위원장(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등 북측 불교계 인사와 8월 8일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공동성명 · 공동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성명서와 합의서는 남측에서 김원웅 前 국회의원(조선왕실의궤환수위 공동의장), 인묵 스님(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 손안식 부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이, 북측에서는 정서정 위원장(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라영식 회장(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이 서명했다.

"남과 북은 문화재 환수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일본 궁내청 등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와 <패엽경>, 미국 보스톤 미술관 소장한 '라마탑형사리구' 반환을 위한 남북 공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남북 공조는 1965년 한일조약으로 반출문화재 청구권을 포기한 남측을 대신해 북측이 북일수교 조건으로 '조선왕실의궤'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남북이 함께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혜문 스님(환수위원회 간사)은 "북측의 변호사 선임 위임을 받아 남북이 함께 민사소송형태로 나선 것은 약탈 문화재 반환에 새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일본 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야마구치 현립대학 소장 데라우찌 문고 ▲이토오 히로부미 규장각 대출 도서 938책 ▲일본 국립박물관, 도쿄대학 소장 '평남 대동군 출토 낙랑유물 등 한일협정 당시 반환받지 못한 문화재들에 대한 반환 요구 대책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남측은 북측에 <한국불교전서>(동국대 출판부 刊),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국립문화재연구소 刊), <일본소재한국전적목록>(문화재관리국 刊),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 刊), <데라우치 문고 목록>(문화재청 제공) 등 문헌을 제공했다.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을 규탄하는 남북불교도 공동성명서도 발표됐다. 남북 불교도들은 성명서에서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며, 일본에 독도강탈 책동 중단과 과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했다. 남북 불교계는 일본의 책동 저지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은 "금강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가는 국면에서 남북 불교계가 독도 문제와 민족문화재 반환 운동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합의서와 함께 작성된 '조선왕실의궤' 환수를 위한 반환요청서는 8월 말경 일본 수상과 외무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침략과 불교 문화재 되찾기에 하나된 남북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 민족종교로서 정통성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격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교과부장관 공식사과

11일, 학교정보지도 사찰누락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이 교과부 학교정보지도 사찰누락에 대해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8월 1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 사찰정보가 누락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금일부로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업무 담당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교과부 감사관에게 이번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위 조사 후 관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도서비스(gis.seoul.go.kr)에서도 사찰 정보가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 문제의 서울시 지도서비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4년 7월부터 서비스됐다. 문제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 역시 국토부와 교과부 지도를 제작한 동일업체여서 수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해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도서비스 중 '내지도 만들기'라는 코너에서는 종교시설로 표시가능한 시설은 교회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13일 논란이 일자 다음날 오전을 기해 '내지도 만들기'에서 교회아이콘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서울시는 "가능한 사찰명칭은 즉시 시정했으며 일부 산악지역의 누락된 사찰 명칭은 기술적으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8억원 돌려달라"

통도사 성북구청에 소송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가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8억원의 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통도사는 소장을 통해 "1998년 성원토건그룹 김성필 前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성북구 소재 부동산에 불당과 탑, 미술전시관 등 종교시설물을 세웠는데 성북구청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고 6년이 지난 2004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3년 치 세금 8억원을 돌라 달라"고 환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성북구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시설로 이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 없다"며 "과세된 건축물 중 일부는 외부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 되어있는 곳도 있고, 또 종교시설과는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곳도 있다"고 통도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종교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로, 이에 종교 단체들은 비영리사업자라서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이번 소송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원 기자

무기한 단식·시위 돌입

범불교도대회 봉행위

정부의 종교편향행위에 항의하는 단식과 1인시위가 시작됐다.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는 8월 11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헌법파괴 · 종교편향 이명박정부 규탄 실천활동 선포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국실장 스님 등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혜경(총무원 총무국장), 미등(총무원 기획국장), 성혜(총무원 교육국장) 스님의 단식돌입과 삭발식이 거행됐다.

노덕현 기자

"불심으로 메달 환호성…"

조계종 포교원 북경올림픽 현장 불자선수 위문

베이징올림픽에서 불자 선수들을 응원중인 포교원 관계자들. 맨 오른쪽이 포교원장 혜총 스님.

베이징올림픽에서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승전보가 연일 들려오고 있다.

첫날인 8월 10일 여자양궁단체전 윤옥희 선수의 금메달과 여자역도 윤진희 선수(53kg급)의 은메달에 이어 11일 남자양궁단체전 임동현 · 이창환 · 박경모 선수의 금메달과, 12일 레슬링 박은철 선수(그레코로만형 55kg급)의 동메달 소식이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불자선수는 모두 32명으로 위의 메달획득 선수뿐만 아니라 남녀 양궁개인전(이창환, 박경모, 임동현, 윤옥희)과 태권도(손태진), 배드민턴 남녀혼합복식(이용대), 여자하키(김미선, 김정희, 조혜숙, 김종은) 등에서 메달획득이 기대된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불교계가 처음으로 응원전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조계종을 대표해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교육부장, 포교부장 등 스님들과 신도 10여명은 8월 11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들은 도착후 양궁경기장을 찾아 한국응원단과 함께 남자양궁 단체결승전을 응원했다. 이날 남자대표들은 중국 관중들의 호루라기 소리나 기침, 야유에 굴하지 않고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이에 앞서 조계종에서는 지난 해 10월 28일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조직했다.

노덕현 기자

"평화·상생" 국회의원들 기도회 연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종교를 초월해 국가발전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 국회연합기도회를 연다.

정각회와 국회직원불교신도회, 가톨릭신도의원회, 원정회, 다산회는 9월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평화와 상생의 정치를 위한 국회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국회연구모임인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대표 박상돈)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장단, 각 당 대표, 각 종교단체 의원모임 회원, 등 3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2)788-2477

김성우 기자

봉 미얀마 문화원 개원 축

모시는 말씀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싸
No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mbuddhas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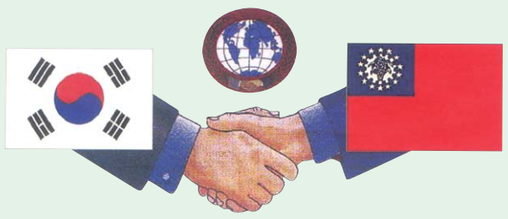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님을 미얀마 문화원 개원에 초대합니다.
미얀마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왜곡되지 않은 진실된 내용을 바르게 아는 공간을 마련하고
미얀마를 좋아하고 알고자 하는 분들의 만남과 대화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 문을 열어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참석하여 주시여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일시 :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종로구 청진동 6 대명빌딩 303호

한국주재 미얀마 대사 우 묘 르윈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공동대표 영산 - 홍파 목탁 - 혜은

문화원 대표전화 02)733-5665 / 협회 02)733-5670~1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불교봉사단 모집

중생과 함께 숨쉬며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부처님의 숨결이 마음과 육신에 와 닿는 생활 불교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곳 서울 한복판에 부처님진신사리박물관을 개원하고 전국 각지의 숨은 인재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불교 지도자들의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한국 정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스님 한분 한분이 소중하고 귀하신 존재이기에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곳에는 어느 종단스님도, 명성도 불문이고 무엇을 펼쳐 보고자 하나 도반이 없어 늘 마음으로 끝나지만 각자 그 지역의 불교 지도자로서 땀흘리는 부처님 세상에 주역이신 소중한 스님 및 재가자들과 마음과 행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법인 설립 중인 국제 불교 봉사단에 법하를 초청합니다.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